

<p>導入되기 때문에 미리 指定을 해 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p> <p>○朴別根委員 아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달린다, 레미콘이 못 나온다, 또 아스콘이 필요한데 AP가 없어서 生産을 못 한다, 이러한 것이 우리 나라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거예요. 수차에, 1년에 한 번도 있고 두 번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년 내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對備해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너희들한테 指定해서 指定業體로서 서울시에 우선 物量을 調達한다, 그 單價는 그 때 당시에 算定해서 支拂하는 것으로 한다 하는 이런 內容의 契約締結을 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使用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p> <p>○企劃管理室長 姜德基 朴委員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事項은 저희들이 항상 年初가 되면, 다시 말하면 94年 같으면 94年度의 建設資材 소위 生産供給의 展望을 판단해 가면서 그때 그때 적절히 對應을 하고 있습니다.</p> <p>○朴別根委員 그러면 금년도의 서울시의.....</p> <p>○企劃管理室長 姜德基 현재 금년으로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p> <p>○朴別根委員 그럼 금년도의 서울시의 骨材 需給량이 얼마나 됩니까?</p> <p>○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것 뽑아서 말씀드리지요.</p> <p>○朴別根委員 그게 骨材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스콘도 그렇고요. 없어지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좋은데, 그런 物資 需給에 대해서는 이것이 언제 우리 나라가 波動이 날지 또 모른다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미리 몇 군데에 指定을 해 두면 北部事業所면 北部事業所, 南部事業所면 南部事業所 이렇게 해서 한 네 군데 정도 해 두면 建設資材事業所를 없애는 대신에 그런 것을 한 4個所를 指定해서 두어서 對策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意見입니다.</p> <p>○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朴委員님 얘기하신 것하고</p>	<p>意見이 같은데요, 그래서 單價契約에 의해서 調達方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單價契約은.....</p> <p>○朴別根委員 單價는, 그 때 가서 支給했다가 그 때 가서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안 줘요. 안 주니까 單價는 그 때 우리가 使用했을 때, 다만, 調達만 우리가 要請한 대로 빨리 해 주고 單價의 算定은 그 때 時勢대로 해 주마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면 서울시, 調達廳이면 調達廳의 契約單價가 있지 않습니까? 契約單價에 基準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指定만 해 둔다 뿐이지 契約單價는 이미 指定되어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指定業所만 定해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p> <p>○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잘 알겠습니다.</p> <p>○朴別根委員 이상입니다.</p> <p>○委員長代理 車在國 다른 委員님,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이상으로 議事日程 第2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p> <p>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중 “본부와 하부기관에”를 “본부에”로 한다.</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p>
--	--

<p>한다.</p> <p>② (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재사업소장이 행한 행정처분·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건설자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종합건설본부장의 행위 또는 종합건설본부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③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건설자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를, 건설자재사업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p> <p>○委員長代理 車在國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니다.</p> <p>同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鄭興鎮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p> <p>○鄭興鎮委員 鄭興鎮委員입니다.</p> <p>豫算問題나 여러 가지 問題에 의해서 京畿道에 있는 糞尿處理所를 없애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西大門, 陽川, 恩平, 江西區 쪽의 糞尿가 中浪까지 가려면 都心을 通過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輸送問題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어떤 것이 더 利益이 되는가 한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p> <p>○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지금 말씀하신 이 狀況이 역시 저희들도 廢止問題를 考慮하면서 여러 가지 檢討를 했던 事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그 狀況 즉, 하루에 우리 處理量을 보시면 약 한 540k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地域에 대해서 전체로 판단하더라도 그 1/10 즉, 50kl에서 60kl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버큘카 하나가 평균적으로 한 약 5·6kl를 積載하는 것으로 보고 하루종일 해 봤잖아 10臺 內外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根本적으로 整理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到達된 것입니다.</p>	<p>○鄭興鎮委員 여러 檢討報告도 봤습니다만 化粧室文化가 많이 變更되어서 糞尿量이 적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地方自治가 定立되어 가면서 各種 團體나 地域利己主義가  팽배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既存 京畿道에 그런 處理場이 있는 것을 廢止하면 멀리 봐서 다음에 그런 問題가 發生했을 때에 다시 設置하기에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可能하다면 存置하는 것이 더 利益인가 그런 問題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신중히 檢討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p> <p>○企劃管理室長 姜德基 高陽市에 있는 衛生處理場은 사실상 저희들이 완벽한 處理基準에 적합한 處理設施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設施을 대대적으로 改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整理를 해야 할 段階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鄭委員님이 걱정하시는 分野,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檢討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糞尿인 경우가 있고 하나는 소위 淨化槽 오니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淨化槽 汚泥處理와 糞尿處理는 사실상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大同小異한 처지에 있고, 앞으로 우리가 加陽이라든지 혹은 蘭芝 處理場에서도 處理가 不可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지로 볼 때에 과연 西部衛生處理場, 道乃리에 있는 이것까지도 管理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點을 檢討를 한 結果입니다.</p> <p>○鄭興鎮委員 高陽市에서도 使用합니까?</p> <p>○企劃管理室長 姜德基 했습니다.</p> <p>○鄭興鎮委員 그러면 서울에서 거기를 포기한다면 高陽市에서 그것을 使用할 豫定입니까?</p> <p>○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거기서는, 高陽市에서는 다시 새로운 處理場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鄭興鎮委員 아, 거기를 놔두고요?</p> <p>○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p>
---	--